



#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전성주 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

## 요약

■ 최근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 보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업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ash Balance(CB)형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미국의 CB형 퇴직연금은 2013년 기준 전체 DB형 퇴직연금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2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CB형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음.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를 경감시켜 사용자 부담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음. 이와 같이 DC형 제도와 DB형 제도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CB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은퇴 후 소득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입법 조사처가 발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보고서에 의하면 DC형 퇴직연금의 기대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일 수 있으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 운영 리스크의 증가로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였음.

■ 그러나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 보장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상승률이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크게 상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증가 수준이 너무 높아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 또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없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즉 Cash Balance형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각 근로자들에게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여 매년 연봉에 따른 급여부담액을 적립해주고 적립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해 줌.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연금자산을 일괄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매년 근로자별로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고 정해진 급여부담액과 이자수익 등 사업주 기여분을 적립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음.
- 다만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이자율 지표 혹은 고정이자율을 적립금에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줌으로써 퇴직자산의 운용위험을 기업이 부담함.
- 이러한 가상계좌는 장부상으로는 기록되고 각 근로자들의 연금액을 통합한 총 연금자산은 사업주에 의해 보수적인 기금운용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됨.

〈표 1〉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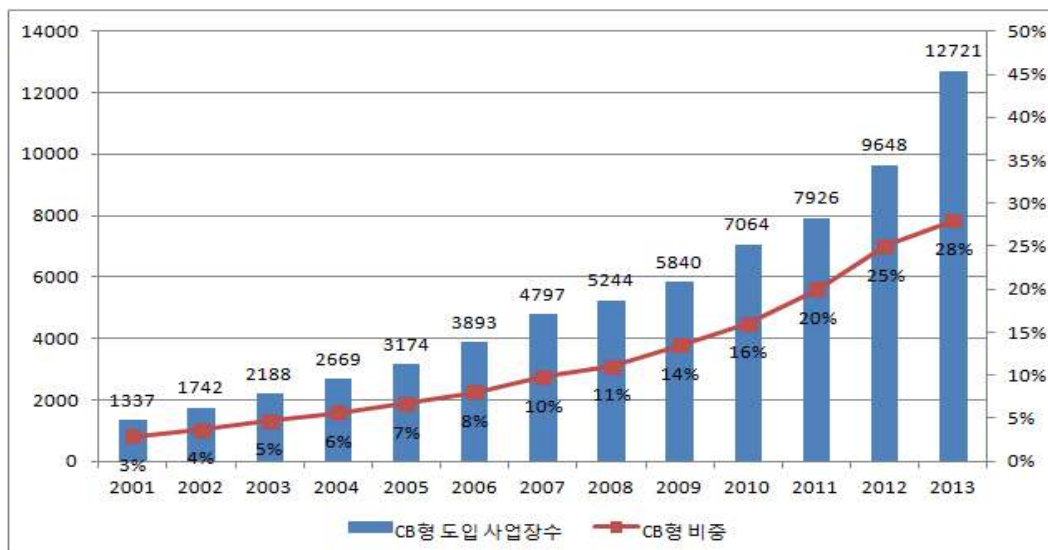
구분	DB형 제도	CB형 제도	DC형 제도
퇴직 시 받을 금액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매년 평균임금 1개월분 적립금 누계 + 금리수익	매년 평균임금 1개월분 적립금 누계 ± 운용수익
기업 부담금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확정, 개인 추가납입 가능
적립금 운용책임	기업이 모든 책임	기업이 모든 책임	근로자 개인 책임
적립금 운용방법	기업이 자산 전체를 일괄 운용	기업이 자산 전체를 일괄 운용	개인이 자산을 운용
이율	고정	고정 혹은 시장금리 연동	운용수익 연동
계좌관리	일괄관리	가상계좌 관리	종업원별 잔고 관리
통산성(이동성)	곤란	가능	가능
투자교육	불필요	불필요	필요

자료: 박준범(2015),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Cash Balance Plan 도입방안 연구” 참고.

■ 1985년 Bank of America에 의해 처음 도입된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2013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28%를 차지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그림 1>에서 보면 2013년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12,721개에 달하고 있음.
- CB형 퇴직연금의 총 자산 규모는 9천 5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전체 DB형 퇴직연금 가운데 CB형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9%에서 2013년 28%로 크게 증가함.

<그림 1>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이



자료: Kravitz(2015), "2015 National Cash Balance Research Report".

■ 일본에서도 2002년 4월 확정금부기업연금법에 따라 CB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CB형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음.

-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퇴직연금 운용손실 확대에 따른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 부담 증가와 200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연금자산 재평가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채무 급증에 따라 DB형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짐.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마쓰시다 전기(Panasonic)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퇴직급여 부채의 회계적 부담에 민감한 히타치, NEC, 도시바, 미쯔비시 전기, 일본전력 등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표 2>의 2014년 일본기업 연금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DB형 제도 가입기업 중 CB형 제도 가입기업이 3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0인 이상 대기업의 CB형 제도 가입률은 41.3%에 이르고 있음.

<표 2> 2014년 일본 DB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기업의 CB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률

구분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	전체
기업 가입률	12.5%	41.3%	37.9%

자료: 日本經濟団体連合会(2015. 3), 「2014年9月度 退職金・年金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 2015. 4. 28.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저금리 환경 하에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를 경감시켜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따르는 사용자 부담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음.

- DB형 제도의 경우 퇴직 후 연금수준이 사전적으로 정의되는데 반해 CB형 제도의 경우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과 그 수익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됨.
- 적립금 운용 수익률 또한 낮은 수준의 고정이자율 혹은 국채이자율 등 시장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DB형에 비해 기업의 금리리스크 경감이 가능하고 미래 퇴직연금 부채에 대한 부담 예측을 용이하게 함.

■ 또한,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근로자 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르는 직접 투자운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며 총 연금의 지급액을 기업으로부터 보증받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자산이 줄어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됨.
- 또한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CB형 퇴직연금 계좌잔고는 가상계좌에 의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으로 전환되거나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쉽게 이관될 수 있음.
  - 평균 근속년수가 짧고 이직이 많은 직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 수준이 결정되는 DB형 제도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DC형 제도와 DB형 제도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CB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kiri**